

코로나 대유행 확산세 도민사회 불안감 증폭

6월 들어 95명 확진... 절반가량이 집단감염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6월 들어서도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세를 키우며 도민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옛세 만에 확진자 수가 한 자리수로 줄었지만 오후 5시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어 예단할 수 없다.

최근 제주에서는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다. 6월 첫날 14명이 확진된 데 이어 >2일 12명 >3일 21명 >4일 22명 >5일 19명 등 이날 들어 옛세 만에 9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날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도민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3차 대유행이 일며 월별 기준 최대 감염자 수를 보였던 지난해 12월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도내 월별 확진자 수는 340명이었다.

6월 들어 확진자 수가 폭증한 이유로는 감염취약시설에서의 확산 또는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난 전파가 속속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달 들어 새롭게 나타난 집단 감염은 제주도 애월읍 식당 식사 모임(13명)을 비롯해 >대동 유희주점(17명) >제주도청 직장 어린이집

(5명) >제주시 일가족(8명)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집단에서 총 43명이 감염돼 이달 전체 확진자 수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6일 신규 확진자 7명 중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타 지역 감염자 접촉자 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도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137명이며, 이 가운데 149명이 현재 격리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4-6일 3일간 사려니숲길에서 열려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희만기자

“숲속 걷는다는 것, 너무 좋네요”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4-6일 열려
 자연 벗삼으며 마음 치유하는 시간 마련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는 것 너무 좋네요.”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4-6일 사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변 사려니숲길에서 열렸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는 숲길을 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 관련기사 5면

신성한 곳을 의미하는 사려니숲은 유네스코가 2002년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품숲이다.

탐방은 남조로변 붉은오름 입구(1118번 도로)와 절물휴양림 인근의 비자림로(1112번 도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하는 코스에서 이뤄졌으며 사려니숲길-성판악을 잇는 코스도 행사기간 탐방이 가능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입장 전 발열체크 등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서명 홍보 >사려니숲 생태 사진 전시회 >사려니숲길 ASMR >물찾오름 탐방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진행되지 않았다.

행사 입구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서명 홍보가 진행됐다. 도우미들은 탐방객에게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탐방객들은 이를 듣고 서명했다.

숲길 탐방에 나선 김미정(52)씨는 “아름답고 유명한 사려니 숲길을 걷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 제주 숲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가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사려니 숲길 안쪽에서는 마스크 착용 인증샷 이벤트가 마련됐다. 마스크를 착용한 후 캐릭터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소정의 상품이 지급돼 인기를 모았다.

행사기간 열린무대 주변에는 사려니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표현한 사진들이 전시됐다. 반딧불이, 사려

니 숲에서 찍은 유성 사진 등은 숲 탐방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잠시 사진을 찍으며 세계적인 명품 숲을 만끽했다.

사려니 숲길을 찾은 최영은(48)씨는 “간만에 자연에 오니 집에 온 것처럼 푸근하다”며 “매일 삭막한 공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에 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너무 힐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에만 허용된 물찾오름 탐방은 큰 인기를 모았다. 물찾 오름 탐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6회 진행됐다. 각 회차당 20명씩 등반이 이뤄졌다.

강만생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 위원회장은 “사려니 숲길은 탐방객들의 건강 증진 및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며 “사려니숲이 세계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137
 6월 17시 기준

내년 대선앞뒤 세몰이 가속화

여야 대선주자·당대표 후보들 제주 방문 잇따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들의 지지모임 발족행사에 참석해 세몰이기에 나섰다. 이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제주를 방문해 당심과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 관련기사 2, 3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군인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아젠토피아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인 '노무현 정신 계승연대 제주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제주지역 지지모임인 '신북지제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4·3 배·보상에 도민 의견 반영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제주지지 모임인 제주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1일 출범할 예정이며, 정세균 전 총리 지지 모임도 이달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제주를 찾아 제주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4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은 비극이고 이념의 갈등속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제주 4·3에 대해서도 당의 의견을 모아 정확한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5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2공항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후보는 6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후 제주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부탁했다.

고대모기자



절매생태공원



도심과 공원, 사람을 잇는
‘하영올레’

웰니스 관광도시 서귀포 원도심의
 자연, 문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3개의 도심 도보코스입니다.



하영올레
HaYoung Olle



새섬



새연교



아랑조을거리

하영올레 1코스 :: 시청출발 → 절매생태공원 → 칠십리시공원 → 새연교 → 새섬 → 천지연폭포 → 아랑조을거리 → 시청 or 숙소